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요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의 출석 증언자 원 수산나 소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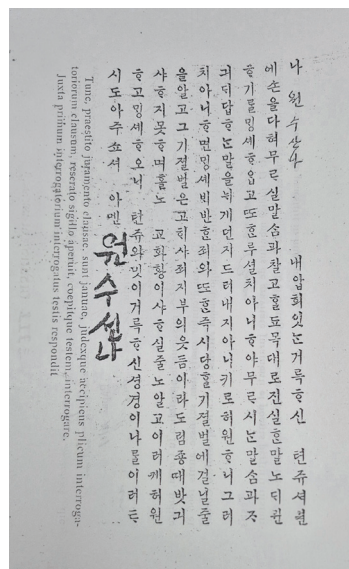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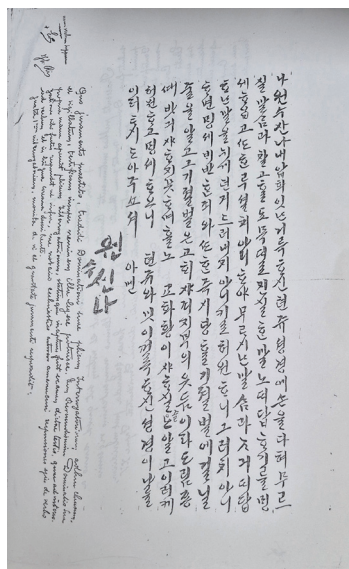
- 1866년 순교자 원운철의 손녀이자 1839년 순교자 원귀임의 5촌 조카 -

시복재판에 출석한 증언자들은 순교자들의 가족이나 지인, 동료들이 많았고, 박해 시기나 이후 교회가 재건되는 시기에 교회 사업에 참여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순교자 관련 증언을 많이 남겼고 본인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증언자들에 대해 ‘상교우서’ 지면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정리·서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박해기~신앙 자유 확보기[개항기]에 걸쳐 활동했던 신앙선조들과 천주교 신앙공동체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1차 교구재판(1899년)과 2차 교황청 위임재판(1921년)]에 모두 출석했던 ‘원 수산나(1844~1926)’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 수산나는 당시 천주교회 내에서 고종(高宗) 임금 유모의 딸이자 블랑 주교가 건립한 양로원의 운영자로서 유명했습니다. 또한, 고종의 생모이자 흥선대원군의 부인 부대부인(府大夫人) 민씨(閔氏)가 1896년 10월 11일, 뫼텔 주교에게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원 수산나는 부대부인 민씨의 세례대모였습니다.

교회사에서 ‘고종의 유모’로 유명한 사람은 1868년 순교자 박 마르타[『치명일기』 43번]이기 때문에 원 수산나의 모친이 ‘박 마르타’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필자도 그러한 오류를 범했지만, 기록들을 다시 검토한 결과 고종의 유모로 기록상 정식 품계[봉보부인(奉保夫人)]를 받은 사람은 박 마르타가 아니라 이 루치아이고, 이 루치아의 딸이 원 수산나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복재판 증인 원 수산나의 선서와 서명 [1차 재판 3회차(1899.6.27)와 2차 재판 2회차(1921.2.28.)] (오른쪽부터)

시복재판 증언자로 나온 원 수산나는 스스로를 ‘양로원 으뜸[長]’이라고 말했고, 『경향잡지』 588호 선종 기사에는 ‘양로원 주인’이라고 나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원 수산나가 1885년 제7대 조선대목 구장 블랑 주교가 설립한 양로원을 실제로 운영하고 감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는 과부가 된 며느리 김 마리아[김윤근 신부의 누이]와 함께 1926년 선종할 때까지 양로원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 수산나는 병인 순교자들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고 그들의 삶과 죽음, 신앙을 진술한 증언자일 뿐만 아니라 천주교가 운영하는 양로원 사업에 참여한 최초의 공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신심과 용기를 가진 원 수산나는 블랑 주교를 비롯한 선교사제들을 보좌하고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협력하면서 1870년대 이후 선교사제의 재입국과 천주교회의 재건에 앞장섰습니다.

1839년과 1866년 순교자의 후손이자 가족인 원 수산나

목적증언자이자 평신도 지도자인 원 수산나는 순교자의 가족이자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1844년경 고양 용머리[현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에 속한 용두동] 태생으로 부친은 원 베드로이고, 모친은 ‘고종의 유모’ 이 루치아였습니다. 그는 15세 때[1858년]에 성 베드로와 혼인했는데 43세 때[1886년]에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원 수산나는 시복재판이나 다른 증언 기록에서 자기 가족 순교자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원 수산나가 1866년 순교자 ‘하느님의 종’ 원윤철(元允哲, 1786~1866) 요한의 손녀이며, 원윤철과 같이 순교한 성연순(成連順, 1832~1866)의 외종 5촌조카[성연순이 원윤철 누이의 아들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39년 순교성인 원귀임(元貴任, 1819~1839) 마리아는 같은 원씨 집안 출신으로 원 수산나의 고모할머니[원윤철의 누이]의 수양딸이었습니다.

원 수산나의 고향인 고양 용머리는 대대로 원씨 집안이 살던 곳이었고, 1827년 이전에 천주교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여겨집니다. 1839년 순교성인 김효임(金孝任, 1813~1839) 골룸바와 김효주(金孝珠, 1817~1839) 아네스 가족이 서울 밤섬에서 이주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후 모방 신부의 사목 방문을 받아 공소가 설립되었고, 김효임·김효주의 오라비 김 안토니오가 공소 회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39년(기해) 이후에는 원씨 집안 신자들을 중심으로 용머리 신앙공동체가 1866년(병인)까지 유지되었습니다.[서종태, 「고양 용머리 신앙공동체에 대한 연구」, 『교회사학』 18, 2021.3, 83~88쪽, 93쪽, 105~106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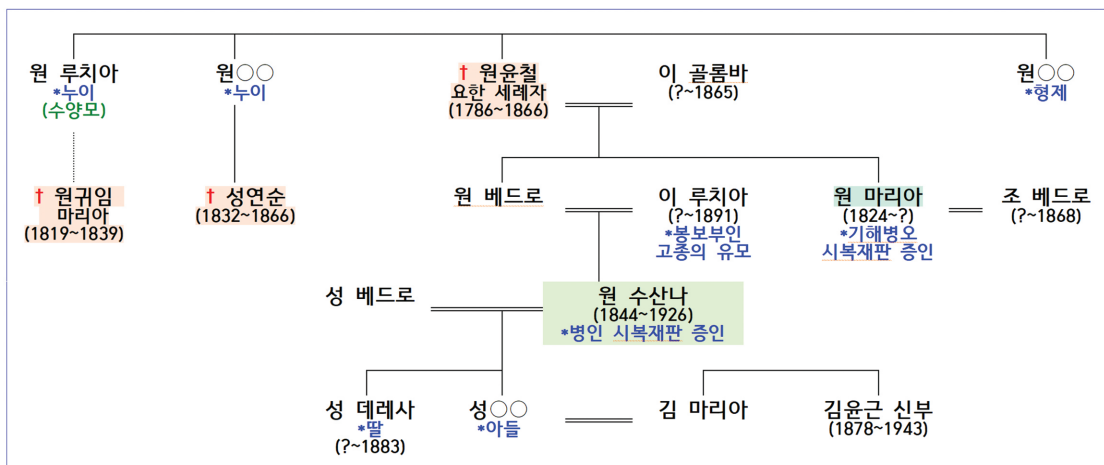
1819년 고양 용머리에서 태어난 원귀임은 증언자 원 마리아[원윤철의 딸]와 같은 동네에서 자랐는데, 모친을 여의고 부친과 함께 떠돌아다니다가 9세 때인 1827년, 원 루치아[원윤철의 누이, 원 마리아의 고모]에게 수양딸로 거뒀습니다. 원귀임은 서울 문안 구리개[현재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일대]의 원 루치아 집에 살면서 천주교 교리와 수놓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는 1833년 이후 어느 신부[여항덕(余恒德, 다른 이름 유방제)으로 추정됨]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1834년 양어머니인 원 루치아가 혼인을 시키려 했지만, 원귀임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봉헌’하기로 결심하고 혼인을 사양한 다음 동정녀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살았고, 원귀임이 고양 용머리를 방문할 때마다 만나보았던 증언자 원 마리아는 그의 신심과 행위가 열정적이고 뛰어나서 다른 신자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92회차(1885.9.25) 원 마리아의 증언, 656~659쪽.]

1839년(기해)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자 원귀임은 집에서 나와 다른 여신자와 함께 이집 저집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이 계속 추적해오자 “우리 두 사람으로 인해 여러 집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남이 죽고 우리가 살아서는 쓸데없고 의지할 곳도 전혀 없으니 자수하여 마땅히 ‘치명’할 수 밖에 없다” 하고 즉시 포도청으로 들어가 붙잡혔습니다.[『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92회차 원 마리아의 증언, 658~661쪽.]

포도청의 심문 과정에서 원귀임은 자신이 천주교 신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배교하고 살아나가는 포도대장의 심문에 대해 “천주님을 공경하고 자신의 영혼을 구하려는 뜻을 결단했으니 다시 묻지 마십시오. 죽고자 할 따름입니다. 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제가 꼭 해야 할 일이고, 배교는 제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신앙을 증거했습니다.〔『기해일기』, 36b~38a;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773쪽.〕

포도청과 형조에서는 혹독한 형벌을 가해 원귀임을 배교시키려고 했으나, 그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혹형의 후유증과 배고픔과 목마름, 전염병까지 그의 육신을 괴롭혔지만 그의 마음과 정신은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마침내 사형판결을 받은 다음 7월 20일(음력 6월 10일) 서소문 밖 형장에서 동료 신자 7명과 함께 참수치명했습니다.〔『승정원일기』, 1839년(헌종 5) 6월 10일 기사〕

〔도표〕 원 수산나의 가계도 (고양 용머리 원씨 집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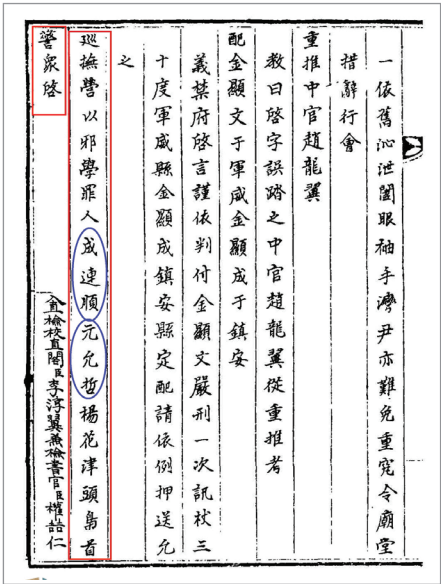
1885년 기해·병오 시복재판에서 원귀임의 신앙과 순교에 대해 증언했던 원 마리아[당시 62세]는 원 수산나의 고모인데, 1824년 고양 용머리 출생으로 부친인 원 요한은 1866년에 참수치명했고 모친 이 골롬바는 1865년에 선종했다고 진술했습니다.〔『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92회차 원 마리아의 증언, 654~655쪽.〕

『치명일기』(정리번호 83~84)에 의하면 ‘원 동지(同知, 관직 이름이지만 노인에 대한 존칭으로 많이 쓰임)’라 고도 불렸던 원 요한[또는 베드로]은 봉보부인[원 수산나의 모친 이 루치아]의 시아버지로 중국과의 교섭에 필요한 배와 돈을 마련하는 등 교회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1866년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 그의 생질(甥姪, 누이의 자식) 성연순이 고양 용머리로 피신해오자 함께 잡혀갔고, 그해 양화진에서 군문효수형을 받아 치명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병인치명사적』(9권 8~10쪽, 22권 140쪽)에도 나옵니다. 9권의 기록에 따르면, 원 요한은 입교하기 전에 첩을 두었지만 입교한 뒤 베르뇌 주교의 지시에 따라 첩을 내보내고 아들과 함께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한편, 22권의 증언은 ‘양로원 원 수산나’가 증언한 것인데 순교자들과 자신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조부와 고모할머니의 아들이 치명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언했습니다.

원 요한과 성연순의 치명 사실은 관찬 기록에서도 확인됩니다. 1866년 10월 15일(양력 11월 21일)의 심문 기록이 『좌포청등록(左捕廳謄錄)』(14책 35b, 36b)과 『우포청등록(右捕廳謄錄)』(22책 40b, 41b)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은 거의 동일한데, 당시 81세의 원윤철(元允哲)은 1862년 무렵에 서울 남대문 밖 자암(紫岩, 현재 서울 중구 봉래동·순화동·의주로)에 사는 정의배(丁義培, 마르코)에게 천주교를 배웠고, 장경

일(張敬一, 베르뇌) 주교에게 ‘요한 세례자’이란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두 명의 신자 이름을 빼고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사형이라는] 형벌을 피하겠냐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조카인 성연순은 돈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 ‘오랑캐’[서양세력]를 끌어들여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원윤철과 성연순은 1866년 11월 24일(음력 10월 18일) 양화진에서 함께 군문 효수되었습니다.〔『일성록』 1866년(고종 3) 10월 18일 ; 『승정원일기』 같은 날 기사〕



원윤철과 성연순의 양화진 군문효수 내용 [전거] 『일성록』 1866년 10월 18일 기사

원 수산나는 1차·2차 시복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의배 회장이 자기 조부, 즉 원윤철의 대부(代父)였기 때문에 잘 알았고, 그가 원윤철과 원 수산나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위의 ‘포도청등록’에서 원윤철이 정의배에게 천주교를 배웠다는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고양 용머리 출신인 원귀임 마리아와 원윤철 요한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 붙잡혀 갔을 때에도 신앙을 끝까지 지켜 치명의 영예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원귀임[원 수산나의 고모할머니의 수양딸]은 1925년 복자에, 1984년에는 성인에 오르게 됩니다. 원윤철[원 수산나의 조부]도 현재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되어 시복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 (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9호, 9월 30일 간행 예정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과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